

대림 제 1 주일

기도서 P. 206 B해

제1독서(이 사 63, 16b-17; 64, 1.3b-8)

제2독서(고린전 1, 3-9)

복 음(마 르 13, 33-37)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⑤ 3201

감 론



## 거울과 시계

이 순 성 신부

인간이 발명해 낸 이기의 종류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헌데 그 이기들은 하나같이 소멸의 이기다. 한마디로 “그것 참, 쓰기에 편하다.” 하는 말 이외에 다른 말들을 듣기가 어렵다. “쓰기에 편하다.”라는 말은 소멸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인간발명의 이기들은 생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유독 소멸의 이기임을 실감케 하는 것들이 있다. 거울과 시계다.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한 내용으로 대중을 이룬다. 소멸을 보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고동치는 맥박과 한 톨 어울려 과거를 일깨워주는 시계도 소멸을 느끼게 해준다.

인간이 발명해낸 이기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쓰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한다면 어리석음 뿐이다. 우리의 희망은 생성에서 찾는 것이어야지 소멸에서 찾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아니 소멸엔 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기는 이기로서 소멸만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그 이기들을 쓰면서 생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착잡하게 소멸의 모습이나 발견하면서 소멸의 시각을 안타까워 할 것이 아니라 참된 모습, 새로운 시각으로 닦아오는 생성에의 기대 끈 희망을 가져야 한다.

오늘이야말로 소멸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야 할 날이다. 쓰기에 편하다는 그 이기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날이다. “항상 깨어 있으시오(불가파 : 깨어 있으시오, 기도하십시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마르코 13 : 33)은 소멸하는 것들이나 소멸 그 속에 묻혀 버리지 않도록 하면서 생성에의 기대 끈 희망을 간직하라는 뜻이다. (불가파 : 희망을 간직하고 기도하라).

언제나 참된 모습과 항상 새로운 시각을 보고 느끼면서 희망의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거울과 시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으로 그 사명을 다한다. 이기를 포함한 모든 물질의 존재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무언가 깨닫게 해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던가

(수류천주교회 주임신부)



서로

## 하느님 대접하자.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대림 첫 주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우리의 신앙을 보다 활성있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우리의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치 선교 1백주년을 맞은 갈려나간 형제들의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이 결코 그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도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그 요지이다.

기독교의 토착화는 시급하다. 그러나 그것이 외국선교에 대한 역행이나 기독교 본질의 변화, 편협한 민족주의로의 환원, 보편 타당성없는 폐쇄적 문화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복음자체를 순수하게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의 교회는, 흔히 신자들을 교회 확장 보고서에 오르는 숫자의 대상, 교회 재정 조달에 필요한 투자자로 간주하여 인간으로 대하는 경우가 드문 현상까지 빚고 있다. 누구에게나 인간대접을 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

겉으로만 물질주의를 배격하고 실제로는 물질주의에 감염, 침해되고 있는 교회가 많다. 교회의 양적성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수입문화의 토착화를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 (홍현설 박사, 「선교 1백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자세」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기껏해야 복이나 비는(祈福)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내년은 특히 우리들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더욱 활활 불타올라야 할 해이다. 함께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안에서 우리 모두가 인간대접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느님 대접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제일 기분나쁜 것이 편애(偏愛)이다. 제발 새해에는 거리끼리 이합집산(離合集散)하지 말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랑을 나누자.

## 숲 정 이 산책



□ 대림절 묵상

□ 앞선 교회

### 님이 오시나 보다

김요한

머언 옛날, 오가며 들려주던 고마운 벗님네(豫言者)의 전갈따라 행여나 행여나 기다리던 그 님(救世主)이 어김없이 정녕 오시나보다. 약속하신 신물(救揆) 기꺼운 노래(福音) 아름 안고서. 님의 귀한 친필(聖書) 고지공때로 정한 그 시(時) 정한 그 곳에.

일구팔십수년 전 저 추억의 밤, 감격의 날에 차가운 눈길 밟고 고요히 내리우던 님, 이내 또 가연 몸 시름결까 지쳐울까 위안 주시려 다시 못잇고 되오시나보다. 이제, 애태우며 그리던 사랑 목마르던 정 한겨번에 좌악 채워주시고 함께 누일 복지(天國)로 데려가고파.

길이 기릴 영생 기약 하시며 그 날 주님은 말씀하셨지 - 사랑은 그림(霧)으로 두터지는 것, 잊음 없이 쉼(愛)라 치면 그로해 잔뜩 파악 풀어 주시리라 고. 하지만, 이제 나 저제나 하릴없는 생의 설렌 마음과 형물어진 머리는 이냥 셋김도 빗질도 없이 늘쨍히 주저앉아 일어설줄 모 르는고나. 님은 다시 오시옵는데...

교회내여, 정신을 차리사이다! 어실퍼 췌뿌리고 아니 들실까 비껴 가실까, 조아리며 가슴태며 목욕재계 어서 하사이다. 언지 분 곱게 단장하고 쓸어 닦아 고운 자리 마련하오면 님 아니 맞아오시랴? 구원의 성사(判工聖事)로 속때 걸때 벗고 금년엘랑 반듯이 나아갑시다. 예쁜 노래(聖歌) 가득 장만 하면서.

우리 님이 고운 님이 다시 오시니...

### 창인동 본당 기초 공동체

### 「구역 모임」 뿌리 내려

정경고 화기에애한 교회, 자꾸만 가 보고픈 교회는 우리 모두의 바램이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심화될 수록 행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탈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 또한 사도 시대의 공동생활을 현실화 하고저 노력해 왔다.

그간 많은 본당들이 이에 관심을 두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창인동(주임신부 김영신) 본당을 한 예로 들어본다.

역대 신부와 간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고 말하는데, 본당내 34곳의 구역·공소는 매달 1회의 「구역형제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 모임은 놀랄게도 사도회 임원을 주축으로한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역모임의 특색은 ① 성경공부 ② 초·중·고생 실패 파악 ③ 선교활동 보고 ④ 미사참례자 현황파악 ⑤ 신자 이동현황 ⑥ 본당과 구역간의 유대 협력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모이는데 제일 큰 비중을 둔다면 틀림없이 이는 성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80%에서 100%의 출석율을 유지하니 말이다. 정한 날 예정된 장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들이 모이고 따라서 본당의 분위기는 날로 새로워지며 신도들도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그들은 모임의 필요성을 이제 생활로써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교우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구역회」는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깊은 사랑과 일치를 나누는 정말 뜻깊고 오붓한 우리 가족모임이기 때문이다. 평신도 지도층은 물론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 사복 자들과 함께 구역모임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 쏟아보자. <이 주철記>

### 대림절(待臨節)과 신앙생활

「대림절」이란 모든 의미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첫째, 일단 온전히 세상에 오신 예수의 강생과 둘째, 또한 우리 인간의 반역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셋째, 세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뜻한다.

교회 전례는 예수성탄을 앞두고 4주간 동안을 특별히,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경건하게 맞이하도록 조용히 기다리며 준비케 하고 있다. 이 감격에 찬 기다림의 순간이 바로 대림시기인 것이다.

그래서 이 때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목마르게 고대하며 신음중에 구원의 날을 기다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구세사를 묵상하면서 재를 지키고 통회보속과 아울러 「관공성사」로 영육을 깨끗이 가다듬어야 한다. 모두 주님께 드릴 작은 사랑의 선물들을 하나씩 준비하자. (熙)

### (축) 영명

박종근·김태윤·박성팔(안드레아)신부님 : 11월 30일  
고경훈(프란치스코 사베리오)신부님 12월 3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달 하겠습니까

### 한미주유소

전화 ⑤ 5669번

주 최남수(아블로니오)  
(가톨릭 센타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주단·포묵(훈수·회갑웃감)도매상  
자종음, 이불(밍크)카펫지 도매상

### 서울주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림 도산매

### 유광사

주유 가메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② 4448 ⑥ 2176

ECCLESIA

□ 추수감사 겸한 「농민대회」

풍년의 한숨이 마침내 쉼디설은 눈물되어 마음들을 요동쳤는지, 비 설것으로 인한 빈 자리 걱정도 무색하게 중앙성당 안을 꽉 메었다. 교구장 직무대행 김 환철 신부님을 중심으로한 40여명의 사제단과 다수의 수도자, 1,300여명의 농민 및 관심있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진 감사의 축제, 살길을 찾자는 외침과 결의의 날이었다.

자국의 농민보다 외국을 위한 농정(農政)의 실책을 비판하고 노동에 대한 보수가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쌀값의 적정가 보장을 촉구하는 문 규현 신부의 강론에 이어 곡물, 채소, 과일등 인간의 생명을 복돋을 농산품들이 봉헌되는 추수감사제였다.

농악대의 가락으로 흥을 돋군 가운데 벌려진 농민축제는 열키설키 마음 합일되는 춤과 농민의 근심을 날게한 자들에 대한 야유와 정벌을 풍자한 탈춤, “뭉치면 산다”는 줄다리기등 다채로웠다.

아무튼 농산품의 자급과 농민 역할의 증차대함에 앞서, 농민들이 흘린 땀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본다.

□ 새 삶 찾은 푸른 수의(囚衣)의 형제들

선과 악을 행함은 손바닥을 엮었다 뒤집는 한 순간의 차이 뿐인가 보다. 지난 11월 20일, 전주교도소에서 27명의 형제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동본당(주임 김병엽 신부)은 두 신부와 세 수녀, 43명의 평신도들이 본당의 전교우들과 뜻있는 사람들의 헌금과 후원으로 많은 서적과 성물, 간식을 준비하여 옛날의 잘못을 뉘우쳐두고 있는 교도소를 찾았다.

그동안 배운 교리를 일깨우면서 수녀의 지도로 성가를 배웠고, 성가대들의 찬양속에 봉헌된 미사 중 27명이 영세를 받았다. 눈물어린 통회와 감사의 정으로 가득찬 새 형제들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법과 세상 판단의 상이함을 절로 느꼈다.

□ 중앙, 합동 사제 위령미사 봉헌

이젠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신부님, 이름조차 생소해져가는 고(故) 사제 22분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가 24일 밤 중앙성당(주임 문정현 신부)에서 500여 신도들의 기도속에 엄숙히 봉헌되었다.

교구설정 이전 우리 교장에서 선교하시다 숨져간 조세 요한 조 신부님을 비롯 6분의 외방선교 사제들과 김양홍(스테파노) 신부님(초대 교구장)을 위시한 본 교구 사제 16분의 간단한 약력소개를 곁드려 생전의 위업을 기리고 추모하면서 연도로 시작한 본 위령제는 정말 근래 보기드문 한 감격의 장인것 같다.

년에 한번 교구에서 공식으로 봉헌하는 미사 외에 그 누가 또 얼마나 저분들을 기억하던가? 모든이의 가슴속에 본당 안에 가신 목자 위한 기원 여기저기 물결쳐 일었으면 싶다.

□ 순창에 성모 성심 수녀회 진출

가파른 고개, 술한 우여곡절 끝에 전북 최남단 순창본당이 대망의 꿈을 이뤘다. 동분 서주한 강신부님의 애걸(?)과 집념, 그리고 통털어 700명 밖에 되지않는 교우들의 합심 협력이 개미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서울 교마운 어머니들의 정이 더 큰 힘이 됐지만...

아무튼 지난 23일,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하얀 집 한 채(공사비 1,200만원) 새 수녀원이 축성됐고 교구에 첫 선을 보인 성모성심회 두 분 수녀님들이 부임, 조촐한 잔치가 베풀어졌다. 참석한 이웃 신부님, 수녀님들과 단출한 식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직 도움으로 사는 본당, 그러나 응지를 품고 일어난 순창에 더 큰 주님의 가호와 일익 발전이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요심이(435) 김병오

어느교수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조사했는데 그내용은...

세상일은 돈이나 권력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60%

권력있는자는 법을 어기기도 버젓이 잘산다고 응답한 사람이 56%

불법행위자 단속한다 웃기네...

교우여러분을 가까이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양 약 · 한 약

**성 가 약 국**

전화 ② 5 8 3 5

약사 권오섭(성운)

(전동 전영정교회물 앞)

전영정교회  ↑ 전주교

성가약국  코스코  발달로

전동성당   전 동 배차장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 5 1 3

한 철 재(비오)

종교서적·성화·성물

**시 문 서 원**

이리시 창인동 1가 235번지

전주교 창인동교회 정문앞

노 스틸 라(미숙)

훈수웃감·회갑웃감·파티복

밍크담요·수예품·맞춤이불전문

**한 일 웃 감**

전화 ② 7 2 0 3

전주시 전동 3가

시대버스 남부배차장 옆

吳 共 千(도밍고)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오늘부터 「B해」가 시작됩니다.
2. 전동성당 한솔 야간학교 개교 1주년 화예발표회: 12월 6일 오후 5시, 전동성당 소강당에서
3. 문학강좌: 일시-12월 12일<토>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3층 강당  
강사-김 현 (평론가·서울대·교수) 주제-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중암)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환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김병구

1. 성심회 월례회: 12월 4일<금> 회합실
2. 방지거 삼회: 오후 2시 강당
3. 지도위원 임시총회: 12월 2일 오후 6시 박신부님 방
4. 본당 청년 신심단체장 모임: 12월 3일 박신부님 방  
구성-회장·부회장·총무, 단체-지도자·대학생회·J.O.C·성가대·교리교사회
5. 성탄반 예비자교리 안내: 발지 프린트물 참조
6. 이주일 성경읽기: 독서-이사야서 11장~40장까지, 복음-마태 9장~16장까지
7. 미사시간 변경: 이날 30일부터 저녁미사 7시로 변경
8. 본당 가정의 날: 12월 3일<목> 7시 저녁미사에 가정 기도문 지참하시고 가족 함께 참석하세요  
아침미사 없고 봉헌금 없습니다
9. 자도회: 임원회-오후 2시 가나약국 (손대혜사)  
12월 4일<금>, 월례회-12월 12일<토> 오전 10시
10. 20대 전공 공개회: 29일 오후 2시, 작품전시회 있음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이홍재

1. 제2차 전국 불사자 세미나: 12월 16~18일(2박 3일) 자세한 내용은 성령쇄신지 50호 참조
2. 베소라 성서강의: 1일<화> 저녁 7시, 주제-최후의 만찬(1), 문제의 소제, 마르코 14: 22-25
3. 애령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간부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공소 판공일정: 다리리-오늘 오후 2시, 신교리-30일 오후 4시30분, 황운리-1일 오후 1시30분, 신원리-2일 오후 3시30분, 왕정리-6일 오후 2시
5.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필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버서 전체
6. 수녀님들 베소라 성서특강: 30일<월> 오후 2시~4시
7. 교무금을 납부합니다: 11월 15일 현재로 여러분의 교무금 납부실적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 견진성사 일입니다: 다함께 기도합니다
2. 미사중에 봉헌한(교무금)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매립주일을 맞이합니다
3. 사도회 정기총회: 12월 6일, 각 구역장님 공소회장 반장 단체장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의자 방식기증: 김갑수·로사자매님 감사드립니다
5. 이웃 선교의 해에 나는 무엇을 하였는지?: 신자 배가운데에 앉았는지? 복음선포에 노력하였는지?
6. 예비자 교리안내: 일요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저녁 7시, 신자 세례별 1인 안내하면 850명의 새로운 주님안의 형제가 됩니다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홍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판공성사: 성사표 오늘 매 미사후 배부 성사표에 기재된 일상기도문 알기한 것 ○표하세요  
교배성사-12월 1·2·3일 오전 10시~12시·오후 3시~5시 구역제한 없이.  
저녁미사 후 1일-다가동·태평동, 2일-진북동·중앙동·고사동, 3일-완산동·화산동·기타  
※ 5일-특별한 사유로 못보신 분들
2. 첫 칠레 5: 3일<목> 저녁 7시  
첫 칠레 7: 5일<토> 저녁 7시

3. 사도회장 임명: 조성호(야고보) 유임
4. 차주 전례: 해설-강준희, 독서-①유기순 ②고봉남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울드레아 모임: 12월 1일<화> 저녁 7시30분
3. 가정방문: 원당리-12월 2일
4. 유아세례: 매일 첫째주일 9시30분  
부모님들께서는 미리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5. 교무금: 미납하신 분들 빠른 시일내에 완납합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 ①조동근 ②김나섭

(술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사도회 월례회: 12월 6일 공식미사 후
2.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12월 5일 오전 10시 회의실
3. 주일학교 후원회: 12월 7일 오후 2시 입안젤라 자택
4. 술정리 성가대 조직 임원소개: 회장-김제시리아, 부회장-김유리안나, 총무-권말다
5. 81년도 교무금 연말까지 완납합니다
6. 사도회 임원소개(전주 술정리 계속): 선교분과위원장-김기현, 전례분과위원장-박기현, 봉사분과위원장-고재현, 재경분과위원장-박대규  
본당살림 맞아 수고해 주세요
7. 전주에 이어 판공일정 안내: 진북2동 4반-12월 7일, 진북2동 6반~7반-12월 8일, 서신동1구-12월 9일, 서신동2구-12월 10일
8.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①김중환 ②김남근, 기도-이기례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8시30분)
3. 선가정회: 12월 1일 오후 2시
4. 클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5. 추계 가정방문: 12월 1~4일-전동·남노송동, 12월 8일~11일-중앙·경원·다가동
6. 다음주(12월 1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이진홍, 독서-①이헌재 ②박중구  
공식미사: 이준영, 독서-①박도식 ②이덕수  
저녁미사: 경양수, 독서-①이진홍 ②김동수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협

1. 신임 사도회 임원선출: 2년동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사도회장-황희상, 부회장-이교성·임마리아  
선교분과-(위원장)채수협, (차장)유병환·이정선·박수홍·김숙·송길정·박성숙·정정숙  
전례분과-(위원장)문태현, (차장)윤승렬·박장래·박용하·이윤·이헌자·이순례  
교육분과-(위원장)조창환, (차장)김용신·서민석·최인규·정정·정은숙·유기자  
봉사분과-(위원장)안찬근, (차장)안윤상·이경훈·이세홍·전영자·조기순·이영자·정현자  
재경분과-(위원장)김홍무, (차장)송월주·함용준·김홍두·하준주·정귀남·유소영·강덕자
2. 사도회 임원 전체회합: 오늘 10시미사 후
3. 유아세례: 오늘 3시미사 후
4. 기사회 월례회: 12월 5일<토>

□ 지난주 봉헌금: 124,750원 교무금: 128,000원